

길림시, 3년내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

—봄철 124개 중점 프로젝트 본격 착공 돌입



봄철 중점 프로젝트 집중 착공식 행사장

최근 2025년 길림시 봄철 프로젝트 집중 착공식 및 저공비행기제조산업 프로젝트 개시 행사가 길림경제기술 개발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 124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착공 및 개개되며 총투자액 858억원

을 기록했다. 2025년은 우리 나라 '14.5'계획 마무리 해이자 길림시의 전면적 부흥을 이끌 핵심적인 한해로 올해 길림시는 5천만원 이상 중점 프로젝트 381개 (총 투자 1,598억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화학산업 분야가 23개로 길림화학 공업그룹 120만톤 에틸렌 설비 현대화, 이산화탄소 80만톤 회수 설비, 황산 재생 20만톤 설비 등이다.

신소재 분야가 9개로 탄소섬유 원사 3만톤 생산라인, 풍력발전기 주빔 용 탄소관 2만톤 공장 등이다.

방설경제 분야가 15개로 북대호스키장 확장, 송화호스키장 서부 확장 등 프로젝트이다.

청정에너지 분야가 12개로 길림화력발전소 '등용량 대체'(等容量替代) 프로젝트, 신에너지 향촌 진흥 태양광 발전단지 등이다.

의료와 농업 분야가 64개로 인삼산업단지, 성안국제농산물물류단지 등이다.

전자정보 분야가 5개로 120미터 전파망원경 과학시설, 반도체 칩 패키징(封装) 공장 등이다.

특히 길림경제기술개발구의 5억 원 규모 저공비행기 제조 및 부대 산업은 드론 제조, 테스트 비행, 교육, 리차륙장 등 종합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전담 부서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길림시 시장 왕길은 "프로젝트 투자가 미래산업구조를 결정한다."며 "3년내에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 모든 역량을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송화강넷

2025 길림시마라톤대회, 5월 18일 개최



길림시마라톤대회의 한 장면 / 자료사진

3월 20일 열린 2025 길림시마라톤대회 기자회견에 따르면 2025 길림시마라톤대회가 5월 18일 오전 7시 30분 인민광장에서 출발 신호탄을 울린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체육국과 길림시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시체육국과 길림시체육총회에서 주관하며 중국육상협회가 기술인증을 제공한다. 대회 규모는 3만명으로 마라톤, 하프마라톤, 미니런(5킬로미터) 등 3개 종목으로 나뉘며 각 종목별 참가자는 1만명으로 설정되었다. 경기는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며 경주 코스는 전통적인 송화강경관 코스를 그대로 활용한다.

마라톤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인민광장에, 하프마라톤의 도착점은 창업구 가원북로에, 미니런의 도착점

은 길림시제1중학교 정문 앞으로 설정되었다. 코스 량측에는 시민들의 전시공연과 전면건강 성과 전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회 신청 접수는 3월 20일 12시에 이미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중국육상협회 공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길림시마라톤 위챗 공식 플랫폼과 대회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4월 13일 18시까지만이다.

마라톤과 하프마라톤 종목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결정하며 추첨 결과는 4월 18일 12시에 공개된다. 미니런 종목은 신청 완료후 결제를 하면 참가가 확정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송화강넷

'세계 결핵 예방의 날' 맞아 결핵 예방 활동 전개

3월 23일, 2025년 '세계 결핵 예방의 날' 홍보 활동 및 전담 자원봉사자 결핵 예방 지식 전파 활동 등 3월 23일, 2025년 '세계 결핵 예방의 날' 홍보 활동 및 전담 자원봉사자 결핵 예방 지식 전파 활동 등 3월 23일, 2025년 '세계 결핵 예방의 날' 홍보 활동 및 전담 자원봉사자 결핵 예방 지식 전파 활동 등

올해 3월 24일은 제30번째 '세계 결핵 예방의 날'로 홍보 주제는 '전면적인 행동, 전력을 다한 참여, 국민 모두의 참여로 결핵을 종식시키자.'이다.

이번 기념식후 길림시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결핵 예방 지식 전파 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가동식에서는 북화대학 공중보건학과 결핵 예방 자원봉사팀의 과거 활동 하이리트 및 신입 모집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다. 또한 제2회 '천만 자원봉사자' 활동 및 '과학적인 결핵 예방, 예방이 중요하다' 주제의 강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지식 강연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코미디 <결핵을 멀리하고 건강을 안아라>, 노래 <결핵 예방 진영 연합>, 소품 <사랑의 결핵 테스트> 등의 프로그램과 퀴즈를 통해 결핵 예방 지식을 홍보했다.

/송화강넷

제 6 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명단에 길림시 2명

길림시문화관광국에 따르면 최근 문화관광부는 제 6 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명단을 공개했다. 길림성에서 포함 11명의 장인이 이 명단에 선정된 가운데 길림시에서는 양결춤(우리만족양결) 제 5대 전승인 조성해와 종식복장 제작기(만족족포 제작기) 제 4대 전승인 진옥추가 선정되었다.

2007년 이래 문화관광부(원 문화부)는 이미 6차례에 걸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명단을 공개했는데 총 선정 인수는 3,998명에 달한다.

70세의 조성해는 '길림성 우수 민간 문화 전승인' 영예를 받았다. 그는 전통 공예 형식에 정통하며 보편 기술을

연구하여 '만족사만양결'을 창작하고 '우리만족양결 동작 도보' 등의 문헌과 영상 자료를 정리했으며 수백점의 전통 공예 도구와 복장을 제작하여 무형문화유산 기술의 유지에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길림성다성우리만족 민간예술단을 설립하고 학교, 사회구역, 농촌에 심입해 공의 전시를 펼쳤으며 국내 주요 축제 무대에도 여러번 올라 우리만족양결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통담구 우리가만족전에 훈련기지를 설립하고 공익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양성했다.

길림시에술연구소에 근무하는 56세의 진옥추는 중국무형문화유산 전통기술대전 금상, 중국무형문화유산

박람회 우수 전승인 전시상 등 다수의 영예를 받았다. 그녀는 만족족포 제작기예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전통 공정의 핵심기술을 숙지했고 박, 물, 자수 등의 공예에도 능숙하다. 기계바늘로 수작업 바늘을 대체한 기술 또한 치포 제작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그녀가 개발한 '미니 만족족포' 계열 공예품은 전통 기술에 현대적 생명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길림시의 여러 학교에 심입해 기술을 전수하고 사회구역, 기업, 관광지에 내려가 무형문화유산 기술 전시와 전승 등의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그녀가 하면 동영상 제작하여 바늘 기술을 홍보하고 전통 공예를 백성의 생활에 융합시켰다. 진옥추의 작품은 국내외 문화전시 등

등에 여러번 등장하여 길림시의 문화 명함에 빛을 더했다.

최근 몇년 동안 길림시는 명록 체계를 완비하고 전승 방식을 혁신하며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정책 보장을 강화하여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현재, 길림시는 이미 무형문화유산 4급 보호 명록을 구축했는데 현, 시급 명록 307개 항목, 성급 명록 70개 항목, 국가급 명록 7개 항목이 있으며 내용은 민간문학, 전통음악, 전통무용 등 10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길림시에는 시급, 성급,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이 각각 190명, 49명, 3명 있다.

/송화강넷

길림시, 운석 시즌 계절 행사 개최

최근 길림시에서는 '길성(吉星)이 빛나는 운석 시즌 행사' 및 '운석전문 연구학습기지' 가동식을 개최했다. 길림시는 매년 3월 8일을 '길성이 빛나는 길림 운석의 날'로 지정하고 운석 시즌 계절 행사를 기획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운석 시즌에는 운석사진 공모

전 및 우수작품 전시, 운석과 천문 연구학습, 운석문화창의업체 간담회, 운석 공의 감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행사가 약 한달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길림시박물관이 자체 개발한 '우주의 선물' 운석 테마 문화 창의제품이 전시되었으며 <목적자가

말하는 운석과의 인연> 영상이 상영되었다.

운석전문연구학습관과 운석전문연구학습기지도 이날 정식으로 개관했다.

운석전문연구학습관은 길림시박물관 1관 1층에 위치해있으며 주요 전시품으로는 운석 표본, 중국 고대 천

문기 모형 등이 있다.

길림시문화관광국 관계자는 "길림시는 운석 자원의 보호와 혁신이라는 사명을 지키며 상해전문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길림 운석을 정적인 전시에서 동적인 서사(叙事)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림일보

외국산 장비에 도전장... 길화화학비료 연간 수리비 332만원 절감 예상

최근 길림화학공업주식유한회사화학비료공장(이하 '길화화학비료공장')은 장비의 국산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들어 합성암모니아 장치의 카본블랙 펌프(氨装置炭黑水泵)와 질산 장치의 요크 아이스머신 기밀(约克冰机机封), 베어링(轴承) 국산화 연구 등 4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연간 수리비 33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길화화학비료공장의 합성암모니아 장치 수송 펌프는 독일 회사에서 생산된 호스 다이어프램 복동 펌프(软管隔膜往复泵)를 사용하고 있다. 이 펌프는 구조가 복잡하고 소모품이 많으며 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 부품이 수입품으로 비용이 높고 납품 기간이 길어 장치의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난제로 여겨져왔다.

기술진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차례 형제기관과 교류하면서 류사



한 매개물 수송 장비의 선정 및 사용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국산 반개식 임펠러 원심 펌프(半开式叶轮的离心泵)를 대체제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약 한달간의 시험운행을 거쳐 국산 원심 펌프가 생산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연간 수리비와 전기료금으로 약 7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의 질산 장치 아이스머신은 미국 회사에서 제조했는데 아이스머신의 전용 베어링과 기밀 역시 수입

장비로서 가격이 비싸고 공급 기간이 길다.

이에 공장은 기술진을 조직하여 장비 점검 시 전용 베어링과 기밀을 측정하고 베어링과 기밀 매뉴얼(手册)을 검토하며 국내 제조업체와의 여러차례 기술 교류를 통해 국산 베어링과 기밀 모델을 확정된 후 2호 아이스머신에 설치 사용 시험을 진행했다. 여러차례의 개선과 보안을 거쳐 현재 예상 효과에 도달했으며 연간 약 67만원의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길화화학비료공장은 기술 혁신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고 장비 성능을 향상시키며 장비 국산화로 외국산 장비를 대체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공장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는 유익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송화강넷

서란, 흰계사니산업 나날이 발전



최근, 서란시 백기진 쌍수촌에 위치한 흰계사니사양단지에서 로동자들이 전자동 부화설비로 생산을 조직하고 있다.

서란시의 흰계사니산업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 단지의 흰계사니 사양량은 올해 100만마리에 도달할 전망으로 80가구 400여명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송화강넷